

『東醫寶鑑』의 醫易思想 研究

¹김 현, ²김남일

¹경희자운한의원,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n the Thought of the Relation between Medicine and I-ching study in 『Donguibogam(東醫寶鑑)』

¹Heon Kim, ²Nam-Il Kim

¹Jaun Oriental Medical Clinic

²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Relationship between medicine and iching is what has been followed to be inherited from the period of generation in iching.. This writing examined the Thought of the Relation between Medicine and I-ching in *Donguibogam*. *Donguibogam* implies the thought that the principles in medicine and iching are same, and is the thought that is broadly spread in *Donguibogam*. *Donguibogam* is very rich in yi-yi-study(醫易學)-based contents, which are involved in research subjects of the relation between medicine and iching such as the theory of Taiji(太極), ba gua(八卦), the thought of human and nature, the thought of Yin and Yang, and sign system of gua(卦), and the theory of Image and Number.

Key words : *Donguibogam*, Relationship between medicine and iching

I. 서론

『東醫寶鑑』은 1610년(광해군 2년)에 허준이 완성한 종합의서로서, 광해군 5년에 25권 25冊으로 간행되었으며 금원시대 의학과 고유의 향약을 합하여 만들어진 한국 의학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¹⁾ 2009년 7월 30일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되었다.

『東醫寶鑑』에 대한 연구는 의서 자체로서의 특징²⁾에 한정되지 않고, 의학사상³⁾이나, 철학사상⁴⁾, 각론의 특징⁵⁾, 다른 의서와의 비교 연구⁶⁾등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의학사에서 위치와 마찬가지로 『東醫寶鑑』은 한국의 醫易學史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의역학연구는 조선시대 이전에 易學에 造詣가 깊었던 儒醫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된 후에, 조선시

- 1) 맹용재 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p.225.
- 2)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pp.319-325.; 박경련, 『東醫寶鑑』의 서지학적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김호, 『東醫寶鑑』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의학론,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참조.
- 3) 권하철, 『東醫寶鑑』을 통한 허준의 의학사상에 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박성규,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허준의 인간관,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허준의 자연관」, 한국의사학회지 제 18권 2호, 2005, 참조.
- 4) 『東醫寶鑑』 연구는 한의학자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철학적 연구의 성취가 뛰어나다.; 성호준,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유학과 도교 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김대형, 『東醫寶鑑』身形門의 도가 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제 15권 2호, 2002, 참조.
- 5) 『東醫寶鑑』은 종합의서로 분량이 방대하고,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의서에만 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당대의 의학이론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론의 연구도 매우 활발하다.; 한봉재, 『東醫寶鑑』의 도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소진백, 『東醫寶鑑』에 보이는 丹溪痰飲論의 의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제 15권 1호, 2002.; 김종오, 『東醫寶鑑』에 나타난 茶의 의학적 운용, 한국의사학회지 제 18권 2호, 2005, 참조.
- 6) 『東醫寶鑑』은 인용문헌의 출처를 소상히 밝혀놓고 있고, 체계적으로 항목을 정리하였으며, 한국 한의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기 때문에, 『東醫寶鑑』을 전후로한 의서들의 연구에도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홍균,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비교고찰, 한국의사학회지 제 13권 1호, 2000.; 차용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제 13권 1호,

접수 ▶ 2011년 11월 4일 수정 ▶ 2011년 12월 15일 채택 ▶ 2011년 12월 24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대에 들어 많은 儒醫들이 醫易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⁷⁾ 우리나라에서 醫易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직 정설은 없지만 대체로 조선 초기 부터 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의 『醫方類聚』에는 醫易思想을 바탕에 깔고 있는 金元時代의 醫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논의의 장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醫易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東醫寶鑑』이 출간되면서 부터이다.⁸⁾⁹⁾

김남일은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에서 허준이 이전시기에 정리하지 못한 醫易思想을 다음의 몇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내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天人相應의 宇宙論의 醫易學의 해석, 둘째, 養生術의 醫易學의 수용, 셋째, 性理學의 理氣論의 수용, 넷째, 순수한 醫學內의 접근이다. 허준은 儒學을 국시로 하는 조선시대의 인물로서, 조선중기 지식인 들이 그러하였듯이, 性理學에 조예가 깊은 학자였다. 『東醫寶鑑』이 편찬된 시기는 朝鮮 性理學의 흐름에서도 중요한 시기였다. 性理學은 16세기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珣등에 의한 이론적 정립기간을 거친 후, 더욱 정제된 모습으로 조선 사회를 주도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¹⁰⁾ 『東醫寶鑑』에서는 의학이론을 설명하는 경우에, 易의 卦爻辭를 인용하거나, 易學의 원리로 설명하거나, 十二消息卦를 사용하는 등, 『東醫寶鑑』에서 易學的인 설명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¹¹⁾

논자는 김남일의 이전 연구를 수용하여¹²⁾ 『東醫寶鑑』의 醫易思想을 연구하려고 한다. 醫易思想이라 함은 醫와 易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사상을 말하며, 『東醫寶鑑』에 폭넓게 퍼져있는 사상이다.

의역학이 포괄하는 내용은 ① 氣一元論, 整體觀, 恒動觀, 天人合一思想, 時空觀 등의 宇宙觀 ② 陰陽五行學說, 太極八卦理論, 象數理論 등의 이론 체계 ③ 河圖洛書의 숫자 체계, 卦爻符號의 숫자계통, 天地陰陽五行 숫자 계통의 術數思想이 의역학에 응용된 내용 ④ 화학 등의 현대 자연과학이 역학과 한의학에 응용된 내용 ⑤ 의학과 역학의 구체적인 개념이 직접 상호 작용과 침투에 의해 형성된 이론 체계¹³⁾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근대에 중국에서 발표된 의역학 관련 주제들은 醫易思維模式, 醫易相通, 證의학과 고대유가 및 도가의 철학과의 관계, 주역과 증의기초이론, 주역과 증의임상, 주역과 운기 및 양생, 의역발전사, 의역학의 현대연구 등등¹⁴⁾이 있다.

『東醫寶鑑』의 의역사상의 연구는 『東醫寶鑑』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東醫寶鑑』속의 태극·괘과

이론, 象數이론, 天人合一사상, 氣一元論, 음양오행학설, 『易經』과 『易傳』의 인용을 통한 의학과 역학의 상호침투작용, 유가 및 도가의 철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東醫寶鑑』의 의역사상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 그 속에서 『東醫寶鑑』의 의역사상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生하고, 兩儀는 四象을 生하고, 四象은 八卦를 生한다”¹⁵⁾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태극을 중심으로 우주생성론과 구조론을 우선 살펴보고, 天人相應의 天人觀, 음양의 消息을 중심으로 한 음양관, 八卦이론의 응용, 六十四卦의 응용, 『易經』과 『易傳』을 직접 인용한 경우, 처방의 활용에서 역학원리를 사용한 경우의 순서로 『東醫寶鑑』의 의역사상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1. 우주생성론과 구조론

太極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출현하는 곳은 바로 周易의

2000, 참조.

- 7) 김남일, 『韓國 醫易學 研究 略史』, 『제 3회 국제역학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주역학회·국제역학연합회, 2007, pp. 309-319(이 글에서는 조선이전까지, 조선초기, 조선후기, 개항이후 일제시대, 해방이후 현대로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醫易學 연구의 특징을 서술하였고, 인물 중심으로 한국의 醫易學史를 정리하고 있다.)
- 8) 김남일,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허준의 의역사상』, 한국의사학회지 제12권 2호, p. 360.
- 9) 한국에서 발표된 의역학 관련 논문들은 많지만 중국 의가의 의역사상이나, 한의학 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한의학을 다룬 의역학 관련 논문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김남일의 『韓國 醫易學 研究 略史』, 『제 3회 국제역학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주역학회·국제역학연합회, 2007,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한국의사학회지 Vol.12 No.2, 1999, 『『東醫寶鑑』 滋陰論의 醫易學的 해석』, 주역연구 vol.5, 한국주역학회, 2000, 이혁재의 『『東醫寶鑑』의 醫易同源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백유상의 『한동석(韓東錫) 역학사상(易學思想)의 특징』,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23, No.1, 2010 등으로, 한국의 의역학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발표된 수도 적고, 주제 또한 한정되어 있다.
- 10)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教 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p. 55
- 11) 김남일, 위의 글, p. 359.
- 12) 본 논문은 김남일 교수의 이전 연구들과 의역학 수업 강의자료, 『東醫寶鑑』 지식-map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 13) 張其成 主編, 『易學大辭典』, 華夏出版社, 1992, p.908.
- 14) 윤창열 編著, 『醫易學』, 주민출판사, 2007, p. 159.
- 15) 明文堂 編輯部 校閱, 『備旨具解 原本周易』, 明文堂, 1999, p.1057, 『繫辭上傳』, 제 11장 :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繫辭傳이다.¹⁶⁾ 『周易·繫辭上傳』 제 11장에서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生하고, 兩儀는 四象을 生하고, 四象은 八卦를 生한다”¹⁷⁾라고 하였다. 하지만 주역에서는 太極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태극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¹⁸⁾

太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후 학자들의 주된 논쟁거리이자, 연구주제가 되어왔지만, 太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天地가 나뉘지기 이전의 상태이며, 만물의 본원이다. 또한 「繫辭傳」의 문장이 易의 우주생성도식이며, 易의 제작과정의 서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⁹⁾

太極의 의미에 대한 주장은 수없이 많지만, 윤창열은 태극에 대한 학설을 크게 둘로 나뉘 설명하였다. 첫째는 太極元氣說이며, 둘째는 太極은 理라는 설이다.²⁰⁾

太極元氣說은 乾의 「象傳」에 “大哉乾元 萬物資始”라 하였고 坤의 「象傳」에 “至哉坤元 萬物資生”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元은 本元, 元始의 뜻으로, 乾元과 坤元은 사실상 陰陽二氣가 만물의 본원이 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太極이 우주론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漢代에 나온 『易緯乾鑿度』로부터 비롯한다. 『易緯乾鑿度』에는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우주형성의 4단계로 易有太極을 해석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身形篇」 제일 첫머리를 『易緯·乾鑿度』를 인용하여 시작하고 있다. 또한 『周易參同契』를 같이 인용하여 太極을 설명하고 있다.

太極을 해석할 때 우주형성의 4단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太易, 太初, 太始, 太素를 들고, 이를 이용해 易有太極을 설명하고 있다.²¹⁾ 아직 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가 太易이 되고, 氣之始가 太初가 되고, 形之始가 太始가 되고, 質之始가 太素가 된다. 形氣質이 혼연일체되어 미분리된 상태를 混淪이라 하였는데 混淪之物이 漢인들이 말하는 元氣이고, 이것이 곧 太極이 된다. 이처럼 태극을 우주최초의 혼연일체된 元氣로 해석하는 것은 漢代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漢代나 唐代에는 주로 ‘氣’를 통해 太極과 宇宙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鄭玄은 태극을 “淳而未分之氣(질박하고 조화되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기)”라 하였고, 孔穎達도 鄭玄의 주장을 계승하여, 『周易正義』에서 “太極謂天地未分之前, 元氣混而爲一, 卽是太初, 太一也(태극은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을 말하니, 원기가 혼합되어 하나가 된 것으로, 즉 太初, 太一이라 한다)”라 하였다.²²⁾

『東醫寶鑑』에서는 太初에서 기가 시작되니, 이를 一氣라

고 하였고, 一氣는 混淪에서 드러난다. 先儒의 論이라고 밝히고 일기의 작용에 따라 맑은 것과 탁한 것이 가려지고 가뭇고 무거운 것이 가려지게 되며, 이처럼 청탁과 경중을 가리는 것을 一氣의 회전 때문이라고 하였다. 輕淸한 것은 天을 이루고, 重濁한 것은 地를 이루며, 天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땅이 떠있다고 한다.²³⁾ 이는 우주의 구조론이라고 할 수 있다. 一氣의 작용과 회전은 朱子 우주론의 기본적인 전제이다.²⁴⁾ 주자는 一氣의 회전을 맺돌의 비유를 사용해 설명하곤 했다. 하늘과 땅의 기가 쉬지 않고 회전하여 계속해서 사람과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²⁵⁾ 하지만 주자의 철학의 근본논리는 理氣二元論이고, 氣와 理는 함께 존재하지만, 선후를 나눈다면 理가 氣보다 선행한다고 하였는데²⁶⁾, 『東醫寶鑑』은 우주생성론, 구조론에서는 이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²⁷⁾, 形氣가 갖추어졌으나 분화되지 않은 混淪을 태극이라 하였다.²⁸⁾ 주자는 태극은 理라고 하였으므로, 주자의 우주생성론과는 매우 유사하기

16) ‘태극’의 개념이 가장 먼저 출현하는 문헌을 『莊子·內篇大宗師』편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莊子·大宗師』 편에서 道를 설명하면서 “太極보다 앞서지만 높지 않고, 六極보다 아래에 있지만 깊지 않다”라고 한 문장이 나온다. 여기서의 太極은 공간의 가장 높은 극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道’ 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莊子·大宗師』에서는 太極이 근본임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며, 나아가 道가 太極을 능가한다고 본 것으로, 이것은 “易에 太極이 있다”는 것의 반명제이므로, 「繫辭傳」의 이 부분이 오히려 『莊子·大宗師』보다 앞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繫辭傳」이 莊子보다 먼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쓰이고 있는 太極의 의미에 가까운 것은 「繫辭傳」의 太極이다. 『莊子·大宗師』의 太極은 위치의 개념에 가깝다. ; 정병석, 위의 글, pp.45-46. ; 정병석은 최초의 문헌을 莊子 大宗師 편이라 하였다. ; 안동립 譯註, 『莊子』「大宗師」, 현암사, 1994, pp. 190-191 : “夫道, 有情有信, 無爲無形, 可傳而不可受, 可得而不可見. 自本自根, 未有天地, 自古以固存. 神鬼神帝, 生天生地. 在太極之先而不爲高, 在六極之下而不爲深, 先天地生而不爲久, 長於上古而不爲老.”; 廖名春 康學偉·梁韋弦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2004, p. 107.

17) 『周易·繫辭上傳』, 제 11장, p.1057 :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18) 정병석. 「太極 개념 형성의 淵源의 배경과 해석」, 『철학』 제88집, 한국철학회, 2006, p. 46.

19) 蕭元 主編, 『周易大辭典』, 일지사, 1992, p.90

20) 윤창열, 「人身의 太極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제13권 제1호, 2000, pp. 1-16, 참조.

21) 허준, 『原本 東醫寶鑑 完營重刊影印本 新增版』, 남산당, 2004, 7刷, 身形, 形氣之始, p. 72.

22) 정병석. 「太極 개념 형성의 淵源의 배경과 해석」, 『철학』 제88집, 한국철학회, 2006, p. 60

23) 허준, 앞의 책, 「雜病篇·天地運氣·天地之形」, p.330,

24) 야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2006, p.91.

25) 야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위의 책, p.135.

26) 야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위의 책, p.347.

27) 理氣二元論에서 理가 氣에 선행한다는 것은 동의보감에서는 “맥은 건도가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으로, 리는 기에 의존하므로 맥은 혈과 기보다 앞선다”라고 하였다. 동의보감 외형편 맥 맥자 혈기지전.

28) 허준, 앞의 책, p.72, 「內景篇·身形·形氣之始」

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太極이 理라는 설은 宋代 周敦頤로부터 시작되어, 太極은 朱子에 이르러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형이상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세에 주돈이의 無極而太極說은 太極이 본래 無極이라는 설과 太極은 無極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설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다.²⁹⁾ 실제로 『太極圖說』 제일 첫 문장인 ‘無極而太極’이 실은 ‘自無極而爲太極’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며, 陸象山은 無極이 도가적 개념이고, 太極이 無極의 하위 개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朱子는 이를 반박하였다.³⁰⁾

朱子는 『周易本義』에서 계사전의 “易有太極”을 설명하면서 “一이 항상 그를 生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易은 陰陽의 변화이고, 太極은 그 理이다”³¹⁾라 하였다. 朱子는 陸象山에게 보낸 편지에서 太極에 대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특히 주역에서 사용된 근본적인 太極의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朱子는 太極이란 용어가 易을 구성했던 처음, 즉 伏羲를 그린 伏羲와 卦사를 연역한 文王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공자의 시대에 이르러 최초로 太極이란 용어가 등장했고, 宋代에 들어서 無極이란 용어가 등장했다고 말한다. 그는 太極이란 兩儀와 四象과 八卦보다 먼저 존재했고, 동시에 兩儀와 四象과 八卦 속에 내재한 것으로 파악한다. 궁극적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름 붙여 太極이라 했다고 한다.³²⁾ 太極圖의 출현이후에 각종 도식으로 역학적 원리와 사유 세계를 해석하는 경향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런 해석 경향은 宋代 이후 象數學派의 큰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³³⁾

『東醫寶鑑·內景篇』, ‘身形·形氣之始’의 문장은 天人相應적 우주론의 醫易學的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학적 우주창조론을 수용한 문장으로, 東醫寶鑑이 天人相應 사상과 易學的 우주론을 수용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³⁴⁾ 『東醫寶鑑』의 醫易思想은 天地와 相應하는 인간의 ‘成形’을 중시하고 있다. 臟腑百體의 主人 精氣神의 동태를 살피는데 있어서도 四時의 規律에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를 ‘存形’과 ‘壞形’의 관점에서 보고자 했다.³⁵⁾

『東醫寶鑑』에는 形氣之始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太極’이 등장하는데, 허준은 또한 宋代 新儒學의 창도자인 程伊川과 朱熹의 性理學의 自然觀을 수용하고 있다.³⁶⁾

『內景篇·津液·積氣生液』에서는 “마음이 안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太極이라 한다. 마음이 움직이면 태극이 動하여 陽을 生하고,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水가 生하는데, 가히 天一生水의 증명이 된다.”³⁷⁾라고 하여, 안정되어 편안한

상태, 陰陽이 생기기 전의 상태를 太極이라 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 앞서서 『東醫寶鑑』에서는 朱子와 程子の 말을 인용하고 있다. 朱子는 “陽이 변하여 陰과 합쳐지면 처음에는 水火가 생기는데, 水火는 氣이다. 움직이고, 번쩍이며 타 오르나, 그 본체는 오히려, 텅 비어있고, 그 형체는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木金이 생기는데, 확연히 형체가 이루어진다. 물과 불은 처음에 스스로 생긴다.”³⁸⁾라 하였고, 程子는 “坎水는 맨 처음 생긴 것 중 가장 먼저 생긴 것이다”³⁹⁾라 하였다.

『雜病篇·婦人·十月養胎』에서는 『醫學入門』을 인용하여 太極이 나오는데, “1월에 太極이 動하여 陽을 만드니, 하늘이 처음 水를 만든 것이므로 이것을 胚라한다.”⁴⁰⁾, “2월에 太極이 靜하여 陰을 生하니, 땅이 두 번째로 火를 만든 것이므로, 이것을 胎이라 한다.”⁴¹⁾, “3월에 太極의 乾道는 남자가 되고, 坤道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⁴²⁾라하여, 陰陽으로 변화되기 전의 상태를 太極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도교적 색채인 『乾鑿度』의 인용을 통한 天人相應의 宇宙論, 朱子, 程子の 性理學의 自然觀을 모두 보여주고 있고, 이는 太極이 元氣라는 설과, 太極이 理라는 설을 모두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天地人 三才사상과 역학적 천인관

주역의 천인상응사상의 특징은 天地人의 三才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易傳』에서 ‘三才’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繫辭下傳」과 「說卦傳」의 문장으로 「易傳」의 三才之道를 설명하고 있다. 「繫辭下傳」에서는 卦가 六爻인 것은

29) 윤창열, 「人身의 太極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제 13권 제1호, 2000, p. 4.

30) 김병환, 「自無極而爲太極인가, 無極而太極인가」, 『퇴계학보』, Vol.93, No.0, 퇴계학 연구원, 1997, pp. 126-135.

31) “一每生二, 自然之理也. ‘易’者, 陰陽之變, ‘太極’者, 其理也.”

32) 朱子 原著, 白殷基 譯註, 『譯註 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pp. 592-594.

33) 정병석, 앞의 글, p. 47.

34) 김남일,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한국의사학회지』 Vol.12 No.2, 1999, p. 361.

35) 이혁재, 「東醫寶鑑의 醫易同源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p.44.

36) 김남일, 위의 글, p. 363.

37) 허준, 앞의 책, p.126, 『內景篇·津液·積氣生液』

38) 허준, 앞의 책, p.126, 『內景篇·津液·積氣生液』

39) 허준, 앞의 책, p.126, 『內景篇·津液·積氣生液』

40) 허준, 앞의 책, p.605, 『雜病篇·婦人·十月養胎』

41) 허준, 앞의 책, p.606, 『雜病篇·婦人·十月養胎』

42) 허준, 앞의 책, p.606, 『雜病篇·婦人·十月養胎』

三才를 겸하여 둘로 한 것이고, 三才의 도의 변동은 陰爻와 陽爻로 나타나고 爻는 위치의 차등이 있으니 陽位, 陰位로 나뉘지고, 陽物, 陰物이 섞여서 문장을 이루며 문장의 타당, 부당으로 길흉이 생긴다고 하였다.⁴³⁾ 또한 「說卦傳」에서는 天道는 陰陽이고, 地道는 剛柔이며, 仁道는 仁義로써 三才가 되고, 이는 上爻는 天, 中爻는 人, 下爻는 地인 小成卦(八卦)를 이루며, 이 팔괘를 겹쳐 64괘를 만들어서 역이 완성된 것⁴⁴⁾이기 때문에 역은 여섯자리로 괘가 완성되었다고 한 것이다.

六劃이 완성되면 여섯획이 각각 爻가 되는데, 각각의 爻位는 陰位와 陽位로 나뉜다. 初爻, 三爻, 五爻는 陽位이고, 二爻, 四爻, 上爻는 陰位이므로 “음으로 나누고 양으로 나뉘서 번갈아 유와 강이 된다”고 한 것이다. 역은 이 여섯자리로 모든 이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획의 大成卦에서는 初爻, 二爻가 地, 三爻, 四爻가 人, 五爻, 上爻가 天으로 배속된다.

三才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謙卦의 「象傳」에도 天道, 地道, 人道가 나온다.⁴⁵⁾ 천, 지, 인은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은 서로 융합되고 영향을 미친다. 천인관계라고 할 때 암묵적으로 天의 개념에 地를 포함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굳이 천인관계를 천, 지, 인 삼재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 「易傳」의 의도는 천지간에 變易하여 生生하는 모습을 역동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천지간에서 인간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삼재의 사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三才의 주요 역할을 요약하면 天生人成이라 할 수 있다.⁴⁶⁾⁴⁷⁾

謙卦 「象傳」의 문구는 『東醫寶鑑』에도 인용되어 있다.⁴⁸⁾ 인체 경락에서 陽經은 손에서 머리, 머리에서 발로 흘러서 이는 謙卦 象傳의 “天道下濟而光明”과 유사하고, 陰經은 발에서 배로, 배에서 손으로 흐르니, “地道卑而上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체 경락의 흐름을 역학적으로 설명한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神은 心에서 통제하며, 氣는 腎에서 통제하고, 形은 머리에서 통제하니, 形과 氣가 교류하고 神이 그 가운데에서 주재하는 것이 三才의 도이다.”⁴⁹⁾라는 邵康節의 말을 인용하여 形-천, 氣-지, 神-인의 연결을 바탕으로 인체의 삼원구조를 증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⁰⁾

『東醫寶鑑』에서 직접적으로 ‘삼재’를 언급한 곳은 처방⁵¹⁾을 제외하면 위의 문장이 「身形」의 「丹田有三」, 「神」의 「神爲一身之主」두 곳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 뿐이다. 하지만, 「內景篇」의 의학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精氣神論은

천지인 삼재사상이 인간에 투영된 것이다. 내경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精氣神 三寶의 상호작용은 天地人 삼재사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역이 天을 天地로 나누고, 인간을 포함하여 天地人 三才로 천인상응을 설명한 것은 천지간에서 인간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본다면, 위의 문장은 그러한 삼재의 사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각각 天과 地에 배속되는 形과 氣가 서로 교류하고, 그 사이에서 人에 배속되는 神이 주재한다고 한 것이 그 이유이다.

養生延年藥餌 중에 삼재의 원리를 활용한 처방과 제환법이 나온다. 天의 精인 창출과 地의 精인 지골피를 함께 가루내고, 人의 精인 흑상심은 따로 즙을 내어 天地의 精인 위의 두 약재와 함께 섞는다. 이후 낮에는 해의 정기를 받고, 밤에는 달의 정수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끊어 올라 마르게 하여 丸을 만든다고 하였다.⁵²⁾ 天地가 교류하고 인간이 중재하는 天地人 삼재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 삼정환의 효능은 延年益壽이다.

3. 消息의 음양관

주역은 陽爻와 陰爻로 대별되듯이 음양이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莊子·天下篇』에 六經의 주제를 요약하여 易에 대해서는 오로지 음양을 說한다고 하였다.⁵³⁾ 하지만, 『易經』에서 음양을 언급한 곳은 단 한 곳이며, 그마저도 음의 古義인 그

43) 『周易·繫辭下傳』, 第十章, p.1116 :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也. 道有變動, 故曰爻, 爻有等, 故曰物, 物相雜, 故曰文, 文不當, 故吉凶生焉.”

44) 『周易·說卦傳』, 第二章, p.1131 :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

45) 『周易·謙』, pp.342-344 : “象曰, 謙亨, 天道下濟而光明, 地道卑而上行,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流謙, 鬼神喜盈而福謙, 人道惡盈而好謙, 謙尊而光, 卑而不可踰, 君子之終也.”

46) 정병석, 「周易의 三才之道와 天生人成」, 유교사상연구, Vol.24, 2005, p.214 참조.

47) 동중서는 三才에 대해, “天地人은 만물의 근본이다. 天은 생하고, 地는 기르고, 人은 成한다.”라고 하였다. 『春秋繁露·立元神』 : “天地人, 萬物之本也. 天生之, 地養之, 人成之...”

48) 허준, 앞의 책, p.343, 「雜病篇·辨證·升降失常爲病」

49) 허준, 앞의 책, p.74, 「內景篇·身形·丹田有三」; p.94, 「內景篇·神·神爲一身之主」

50) 김남일,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허준의 의역사상, p.365.

51) 「內景篇·血·亡血脫血證」과 「雜病篇·虛勞·虛勞調理藥」에서의 처방으로 三才丸이 있다.

52) 허준, 앞의 책, p.78, 「內景篇·身形·養生延年藥餌」

53) 詩以道志, 書以道事, 禮以道行, 樂以道和, 易以道陰陽, 春秋以道名分

늘을 의미하는데 그쳤다.⁵⁴⁾ 음양을 說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易傳』에 있어서 이다. 특히 繫辭傳, 文言傳에 빈번하게 나와 있다. 易傳의 성립시기는 小象傳, 彖傳이 先秦時代, 繫辭傳, 文言傳이 이어서 秦漢때, 大象傳, 說卦傳, 序卦傳, 雜卦傳이 가장 뒤인 前漢末까지 이다. 小象傳, 彖傳에 專門으로 되어 있는 剛柔사상에서 繫辭傳, 文言傳에 專門으로 나오는 陰陽사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小象, 彖傳에서 성했던 剛柔사상은 相反, 應合의 사상을 설명하는데는 충분하였지만, 終始의 사상을 설명하는데는 불충분하였고, 繫辭傳을 기다려야 음양사상으로 대리하게 되었다. 계사전은 64괘 전체의 繫辭를 대상으로 한다. 縱橫으로 역의 卦效, 象理에 대하여 범론하고 있다. 계사전의 음양사상은 건곤의 괘를 기초로 하여 立論됨과 동시에 卦중의 爻도 지시하여 論하기도 한다. 이것에 의하여 爻를 기초로하여 立論해온 剛柔사상을 대표하게 된다.

음양과 剛柔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說卦傳이다. “음양의 변화를 살펴 卦를 세우고, 剛柔를 발휘하여 爻를 生하였다”⁵⁵⁾라 하여 卦에 응하여 음양을, 爻에 응하여 剛柔를 설하고 있다. 또한 “하늘의 도를 음양이라하고, 땅의 도를 剛柔라하고, 사람의 도를 인이라 한다.”⁵⁶⁾라 하여 음양이 剛柔보다 상위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剛柔사상에는 원래 기의 사상은 회박하다. 음양사상은 剛柔사상의 相反, 應合의 논리를 계승하고 終始의 논리를 구비한다. 이것은 漢初의 『春秋繁露』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易傳의 剛柔사상과 음양사상이 깊이 관계하고 있다.⁵⁷⁾

음양사상은 동양철학과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지만, 주역의 음양사상이 더욱 주목 받는 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 사상계에 미친 파급력이 매우 컸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계사전의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 것을 道라고 한다.”⁵⁸⁾라는 문장은 음양 2기의 變通, 感應이 천지자연의 도라고 명시하여, 이후 氣學, 道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一陰一陽은 一陰이 끝나고 一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一陰이 消하면 一陽이 息하는 것이며, 一陰이 息하면 一陽이 消하는 消息盈虛의 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一陰一陽하는 道를 卦爻로 명시하기 시작한 것은 前漢의 孟喜에서 시작되는 卦氣說 중의 12辟卦의 설이며 十二消息卦라고도 한다.

십이소식괘는 復(☱☵), 臨(☱☳), 泰(☱☲), 大壯(☱☳), 夬(☱☰), 乾(☰☰), 姤(☴☰), 遯(☶☷), 否(☷☰), 觀(☶☱), 剝(☶☱), 坤(☷☷)

卦에 十二月를 배합하여 설명한 것이다. 一陽이 생기는 復卦(11월)부터 陽氣가 극성하게 되는 乾卦(4월)까지는 陽이라고 陰이 소멸하는 과정으로 息卦라 하고 一陰이 생겨나는 姤卦(5월)부터 陰氣가 극성하게 되는 坤卦(10월)까지는 음이 번식하고 양이 소멸함을 상징하므로 消卦라고 한다.⁵⁹⁾

『東醫寶鑑』에서는 이러한 음양의 소식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雜病篇·暑·夏暑宜補氣』에서는 “子월에 一陽이 生하고, 寅월에 三陽이 生하고, 巳월에 六陽이 生하니 陽이 모두 上으로 나간 것이다. 이는 氣가 뜨는 것이다.”⁶⁰⁾라고 하여 각각 復卦, 泰卦, 乾卦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1년의 기후 중에는 “5월 夏至에 陰氣가 生하는데 반대로 매우 덥고, 11월 동지에 陽氣가 生하는 데 도리어 매우 추운 것은 아래에서 기운이 생기면 위로 밀어올리기 때문이다. 음이 생기면 양이 밀려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덥고, 양이 생기면 음이 위로 밀려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춥다.”⁶¹⁾라 하여 각각 姤卦와 復卦의 형상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12월령을 12괘에 배속한 12소식괘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자.

十二消息卦로 陰陽之氣의 升降을 설명한 부분이다. 一陽이 땅에서부터 생겨서(復卦 ☱☵) 상승하여 春분이 되면 天地의 중간인 泰卦(☱☲)가 되고, 天에 도달하면 乾卦(☰☰)가 되며, 양이 극하면 음이 생기니(姤卦 ☱☴), 점차 하강하여 秋분이 되면 天地의 중간인 否卦(☷☰)가 되고, 더욱 하강하여 땅에 이르면 坤卦(☷☷)가 된다.⁶²⁾

十二消息卦를 月令에 배치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十二消息卦를 활용하여 元氣의 盛衰를 논하기도 하였다. “元陽眞氣는 안으로 純陽의 乾에 상응한다. 元氣를 잃으면 6陽이 없어져서 陰氣만 남게 되어 죽기 쉽다. 剝卦처럼 음으로 다 변하지 않으면, 復卦처럼 양기가 돌아오지 않으며, 음이 극하지 않으면 양이 생기지 않는다.”⁶³⁾고 하여,

54) 『周易·中孚卦』, p.942: “九二,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55) 『周易·說卦傳』제1장, p.1129 :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56) 『周易·說卦傳』제2장, p.1131 :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57) 小野澤精一, 福永光司, 山井湧 編, 전경진 譯, 『氣의 思想』, 원광대학교출판국, 1987, pp. 128-153 참조.

58) 『周易·繫辭上傳』 제5장, p.1010 : “一陰一陽之謂道...”

59)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pp.79-80.

60) 허준, 앞의 책, p.410, 『雜病篇·暑·夏暑宜補氣』

61) 허준, 앞의 책, p. 332, 『雜病篇·天地運氣·氣候差異』

62) 허준, 앞의 책, pp. 330-331, 『雜病篇·天地運氣·陰陽之氣升降盈虛』

건강한 상태를 양기가 충만한 乾卦에 비유하고, 쇠락하고 죽는 것을 陽爻가 없는 坤卦에 비유하며, 양이 사라져 가는 剝卦와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復卦의 예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이는 陰陽氣의 消息을 이용한 十二消息卦를 차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八卦의 운용

易은 八卦를 만물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팔괘가 표시하는 8개의 부호를 천지간의 物象에 견주어 있다.

「內景篇·권3」에서 五臟 각각에 대한 설명 중에 肝屬物類, 心屬物類, 脾屬物類, 肺屬物類, 腎屬物類의 제목으로 각 장기의 배속물들을 서술하고 있다. 『東醫寶鑑』에는 이 속에 팔괘에 대한 내용도 삽입되어 있다. 간의 경우는 其卦爲震, 심은 其卦爲離, 비는 其卦爲坤, 폐는 其卦爲兌, 신은 其卦爲坎 이라 하여 장부에 팔괘를 각각 배속하였다. 이는 후천팔괘의 방위 배속에 오장의 방위 배속을 연결 지은 것이다.⁶⁴⁾ 당중해의 인신과 팔괘의 배속과 비교하면, 간을 제외한 나머지 네 장부는 일치한다. 간의 경우는 당중해는 巽卦(☴)는 陰이 아래에 있고 陽이 위에서 호응하니 厥陰肝經에 해당한다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간을 震卦에 배속하였다. 나머지 네 장부는 배속이 동일하다. 후천팔괘의 방위로 봤을 때는 脾의 배속에서 차이가 있다. 후천팔괘 방위도는 가운데가 없으니, 비의 특성과 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속한 것으로 보인다.

장부와 팔괘의 배속이 방위가 아니라 속성으로 연결된 경우도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胞의 형상을 설명하면서 “胞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정을 저장하고 있다가 사출시키는 곳이고, 부인은 胞에 매여서 임신을 하는 곳이니 모두 生化의 근원이 된다. 이는 五行도 아니고, 水도 아니고, 火도 아니고, 天地의 異名이다. 坤土가 만물을 생하는 것을 본뜬 것이다. 胞는 陰을 저장하여 地를 본뜬 것이다”⁶⁵⁾라고 하여, 자궁은 땅과 같아서 坤土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坤은 乾의 만물을 資始하는 기능을 받아 만물을 資生하는 것이다.⁶⁶⁾

또 다른 예는 연잎에 싸서 익힌 밥으로 丸을 만드는 것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연잎의 모양이 가운데가 비어있어 震卦의 상이니 사람이 이에 응해 足少陽膽을 生한다”⁶⁷⁾라고 하여, 담 또한 간처럼 진괘에 배속하였으며, 이도 장부와 팔괘의 속성으로 연결한 것이다.

의학에서는 팔괘중에서 특히 乾坤坎離의 괘를 선용하였는데, 이 괘의 활용은 이어지는 64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5. 『東醫寶鑑』 속의 六十四卦

1) 水火既濟와 火水未濟

수화기제는 坎(水를 형상)이 위에 離(火를 형상)가 아래에 위치하여, 水火의 교류가 완전한 상태를 형상한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水火既濟 상태를 매우 중시하였다. 火가 아래에 있어서, 위로 상승하고, 水가 위에 있어 아래로 내려와 서로 순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火의 성질이 炎上하는 것이고, 水의 성질이 下降하는 것을 감안하면, 성질 본래의 위치대로, 火水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火와 水는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火水未濟卦).

즉 心臟의 기운은 하강시키고, 腎臟의 기운은 상승시켜 주는 것이 건강한 상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전체 조건이 된다.

『東醫寶鑑』에서도 이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虛損은 모두 水火가 조화되지 않아서 일어난다. 火降하면 혈액이 화창하고, 水升하면 정신이 충만하다. 心과 腎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주로하고, 脾胃를 보하는 것을 겸하면 입맛이 나고 精·神·氣·血이 저절로 생겨난다”⁶⁸⁾라고 하였다. 또한, “수화가 조화를 이룬 후에야 능히 만물이 생할 수 있다”⁶⁹⁾고 하였고, “어린이는 水가 위에 있어 보는 것이 명료한데, 노인은 火가 위에 있어 보이는 것이 어렵듯하다”⁷⁰⁾고 하여 수화기제 상태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병리도 설명하고 있다.

赤白濁을 설명하면서, “선현이 말하기를 여름에는 흙이 건조하고 물이 탁하며, 겨울에는 흙이 견고하고 물이 맑다. 이것이 그 이치이다. 水火既濟하면 흙은 스스로 견고하고 물의 흐름은 맑다. 소변이 白濁한 것은 모두 脾臟에 虛熱이 있고 腎이 부족하여 土邪가 水를 침범한 것이다.”⁷¹⁾라고

63) 허준, 앞의 책, p.75, 「內景篇·身形·學道無早晚」

64) 김남일, 『東醫寶鑑』을 통해 본 허준의 의역사상, p. 366.

65) 허준, 앞의 책, p.155, 「內景篇·胞·胞形象」

66) 김남일, 앞의 글, p. 367.

67) 허준, 앞의 책, p.429, 「雜病篇·內傷·橘連枳朮丸」

68) 허준, 앞의 책, p.444, 「雜病篇·虛勞·虛勞治法」

69) 허준, 앞의 책, p.350, 「雜病篇·用藥·補瀉相兼」

70) 허준, 앞의 책, p.226, 「外形篇·眼·老人眼昏」

71) 허준, 앞의 책, p.177, 「內景篇·小便·赤白濁」 :

하여, 水火既濟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東醫寶鑑』에서 既濟淸神散이 “治中焦熱, 淸上實下”⁷²⁾한다고 하였는데, 上焦를 맑게 하고, 下焦를 實하게 하는 것이 인체에서 既濟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2) 地天泰

地天泰卦는 坤上乾下의 괘로서 “坤陰이 위에 있고 乾陽이 아래에 머무니, 天地陰陽의 氣가 서로 교류하여 화평하면, 만물이 생성하고 통한다.”⁷³⁾ 하였고, 「象傳」에서 “天地가 교류함이 泰이니, 후에 써 천지의 道를 이루고, 天地의 마땅함을 보상하여, 백성을 左右한다”⁷⁴⁾라 하였다.

唐宗海는 『醫易通說』에서, 인간이 初生하는 원리가 泰卦의 원리와 같음을 설명하였고, 乾坤이 相交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였으며, 天地交易에 의해서 天地가 坎離로 변화하면 水火既濟 상태가 되어 무병한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⁷⁵⁾

『東醫寶鑑』에서도 “天地가 교류하여야 만물이 통한다”⁷⁶⁾라 하였고, 「雜病篇·診脈·互脈」에서는 互脈을 설명하면서 地天泰의 상태를 인용한다. 地天泰卦를 빌려 互脈을 설명하는 것으로, 手太陰肺經상의 寸關尺 三部脈을 눌렀을 때 脈이 手陽明大腸經으로 이동하는 것을 처와 지아비의 관계, 즉 臟의 經脈인 肺經이 妻, 腑의 經脈인 大腸經을 夫의 관계로 대비하여, 臟腑, 즉, 陰陽이 서로 교류하여, 無病의 상태를 나타냄⁷⁷⁾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唐宗海나 『東醫寶鑑』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의학에서는 건강하고 無病한 상태를 地天泰, 水火既濟의卦를 이용해서 이해하였다.

3) 天地否

비괘는 乾上坤下하여 상하가 교류하지 못하여 막힌 것을 형상한 괘이다. 『東醫寶鑑』에서는 “痞는 否괘이다. 이는 주역에서 말한 天地가 교류하지 않는다는 否卦를 말하니, 안은 유순하고 밖은 강하여 만물이 不通한다는 뜻이다. 사물은 끝까지 막혀있을 수는 없다. 고로痞가 오래되면 脹滿이 되어 치료할 수 없게 된다”⁷⁸⁾고 하여 胸痞를 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괘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창만이 되는데, 창만의 원인도 비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七情으로 안이 손상되고 六淫이 침범하였는데, 음식에 절도

가 없고 방로로 인해 허해지게 되면, 脾土의 음이 손상되고 轉輸之官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며 위가 음식을 받아 운화하지 못하게 되니 고로 양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여 천지가 교류하지 않는 否卦와 같은 상이 된다”⁷⁹⁾. 消渴이 생기는 원인은 “폐는 오장의 華蓋이다. 만약 하초에 온기가 있어서 혼증하면 폐가 윤기있게 된다. 하초가 냉한 것이 심하면 양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폐가 마르고 소갈이 생긴다. 주역에 乾上坤下하면 그 괘는 否가 된다. 양에 음이 없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음에 양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하니 否가 생긴다”⁸⁰⁾라 하였고, 否卦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淸關의 원인을 “양이 오르지 못하고, 음이 내려오지 못하여서”⁸¹⁾라고도 하였다.

否卦는 병리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상 또한 흉비, 창만, 소갈, 淸關으로 중초의 문제를 일으킨다. 天地가 不交하면 상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승강을 조절하는 脾土나 중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질병의 설명에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비괘가 사용된 곳은 더 있다. ‘陰陽之氣升降盈虛’에서 十二消息卦의 하나로 秋分의卦氣로 사용된 것⁸²⁾, ‘厥陰形證用藥’에서 “否極泰來”⁸³⁾라고 하여 物極則反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4) 地雷復卦

復卦의 경우는 初爻가 陽爻이고 나머지는 陰爻이다. 十二消息卦의 11월 처음 괘가 되며, 陽氣가 생겨나는 것을 상징하는 괘이다.

『東醫寶鑑』은 이러한卦象을 받아들여, 의학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참된 하나의 기가 있는데, 丹田으로 내려오면 一陽이 돌아오기 시작한다”⁸⁴⁾라

72) 허준, 앞의 책, p.420, 「雜病篇·火·中焦熱」

73) 『周易·泰』, p.292

74) 『周易·泰』, p.294 : “天地交, 泰. 后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75) 唐宗海 著, 김달호, 안규석 共譯, 『醫易通說』, p. 168

76) 허준, 앞의 책, p.354, 「雜病篇·吐·下部脈不見宜吐」: “天地交而萬物通也.”

77) 허준, 앞의 책, p.345, 「雜病篇·診脈·互脈」

78) 허준, 앞의 책, p.266, 「外形篇·胸·胸痞」

79) 허준, 앞의 책, p.501, 「雜病篇·脹滿·脹滿之源」

80) 허준, 앞의 책, p.508, 「雜病篇·消渴·消渴有坎火衰少」

81) 허준, 앞의 책, p.457, 「雜病篇·霍亂·霍亂之因」

82) 허준, 앞의 책, p.330, 「雜病篇·天地運氣·陰陽之氣升降盈虛」

83) 허준, 앞의 책, p.384, 「雜病篇·寒·厥陰形證用藥」

84) 허준, 앞의 책, p.75, 「內景篇·身形·人心合天機」

고 하여, 純陰之體인 坤卦에서 初爻가 양인 復卦로 되돌아 오는 것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6. 『周易』 원문의 의학적 차용

『東醫寶鑑』에서는 주역 원문을 직접 인용하여 의학적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 다수 있다. 주역의 문구를 직접 인용한 부분들을 별도로 정리해보았다.

1) 履霜 堅冰至

『東醫寶鑑』의 「雜病篇·火·陰虛火動者難治」에서는 坤卦의 初爻 爻辭인 ‘履霜 堅冰至’를 인용하여 음허증이 난치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⁸⁵⁾

딱딱한 얼음이 이미 이르렀다(堅冰已至)함은, 그 이전에 조금씩의 징조들을 보여주었는데, 병을 파악하지 못하고, 치료하기를 꺼려,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을 곤괘의 초효 효사인 履霜 堅冰至⁸⁶⁾를 인용하여 강조한 것이다.

『文言傳』에서는 “善을 쌓은 집은 반드시 경사가 있고, 不善을 쌓은 집은 반드시 재앙이 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생긴 까닭이 아니다. 그것이 유래된 것은 점진적인 것이니, 그것을 분별하고 일찍 분별하지 못한 것에 말미암는다. 역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딱딱한 얼음이 이른다’라 하였다⁸⁷⁾라 하여, 坤卦의 初爻에서 음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履霜 堅冰至는 서리를 밟으면, 딱딱한 얼음이 얼 것을 미리 알아야한다는 것이며, 딱딱한 얼음이 얼기 전에는 서리가 징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陰虛火動의 질환은 서리를 밟는 것과 같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서 환자가 가벼이 여기거나, 알지 못하여 딱딱한 얼음이 언 것처럼 회복하지 못할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2) 同聲相應, 同氣相求

『文言傳』에 乾卦 五爻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九五曰飛龍在天利見大人 何謂也, 子曰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⁸⁸⁾라 하였다. 이 문장을 의학적으로 차용한 것이 『東醫寶鑑』에서도 보이는데, 인용한 구절은

‘同聲相應, 同氣相求’, ‘火就燥’, ‘各從其類’이다. 각각을 살펴 보자면, 『東醫寶鑑』 「雜病篇·用藥·求屬之法」에서는 求屬之法은 同聲相應, 同氣相求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熱者는 寒하게 하고, 寒者는 熱하게 하는 逆治法을 사용해서 낫지 않을 경우, 질병의 음양, 한열, 표리의 속성을 따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⁹⁾ 구속지법은 『文言傳』의 同聲相應, 同氣相求의 원리인데, 그 예는 “水는 濕으로 흐르고, 火는 燥한 것으로 나아간다(水流濕, 火就燥)”이며 이는 각각 그 동류를 따라간다(各從其類)는 것이다.

求屬之法과 同聲相應, 同氣相求의 예를 들어보면, 「灸法」에서 “熱者에게 뜸을 하는 것은 鬱熱之氣를 밖으로 발산시키기 위함이니, 火就燥의 뜻이다⁹⁰⁾라 한 것이다. 또한, 「魚骨鯁」에서 “목에 걸린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밀어내야한다. 가마우지는 물고기 가시가 걸린 것을 치료하고, 자석은 바늘이 걸린 것을 치료하고, 머리 태운 것은 머리카락이 걸린 것을 치료하고, 삶이나 범의 뼈는 뼈가 걸린 것을 치료하니, 各從其類의 뜻이다⁹¹⁾라 하여, 의학적 처방인 求屬之法과 역학적 이론인 同聲相應, 同氣相求의 조합이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있다.

3) 기타

人身의 맥이 周流不息하는 것을 乾道乾乾의 뜻⁹²⁾이라 하여, 乾卦 九三의 爻辭인 “君子終日乾乾하여 夕惕若이면 厲하나 无咎리라”에서 밝힌 건도는 지극하게 애써서 쉬지 않고 계속한다는 뜻을 인용한 것이다. 건괘의 『象傳』에서 “終日乾乾은 反復道也”라 하였다.⁹³⁾

「身形·先人格言」에서는 丹溪의 飲食箴을 인용하여 음식 때문에 몸을 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하면서, 주역의 象辭에서는 음식을 조절하라 하였다. ‘음식을 조절하라(節飲食)’는 말은 頤卦의 『象傳』에서 “군자는 頤괘를 본받아 말을 신중히 하고 음식을 조절하여야 한다⁹⁴⁾라 한

85) 허준, 앞의 책, p. 「雜病篇·火·陰虛火動者難治」

86) 初六履霜 堅冰至

87)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臣弑其君 子弑其父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者 漸矣 由辨之不早辨也 易曰履霜堅冰至 蓋言順也

88) 『周易·文言傳』, p.144

89) 허준, 앞의 책, p.350, 「雜病篇·用藥·求屬之法」

90) 허준, 앞의 책, p.756, 「鍼灸篇·鍼灸·灸法」

91) 허준, 앞의 책, p.257, 「外形篇·咽喉·魚骨鯁」

92) 허준, 앞의 책, p.290, 「外形篇·脈·脈者血氣之先」

93) 『주역·乾』, p.114.

94) 『주역·頤』, p.496 : “象曰山下有雷, 頤, 君子以, 慎言語, 節飲食.”

것을 인용한 것이다.

7. 역학원리를 활용한 처방95)

1) 坎離丸에 대하여

『東醫寶鑑』 처방명 중에서 坎離丸, 先坎離丸, 後坎離丸, 坎離膏, 坎離既濟丸, 清離滋坎湯은 坎離의 卦를 이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坎離는 八卦(八經卦)의 象을 이용한 處方命名이다. 八卦의 象을 이용한 처방이므로, 八卦取象에 의한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坎離丸, 清離滋坎湯등 坎, 離의 卦를 取하여 命名한 처방이 다수 있다. 이 글에서는 坎離丸의 활용을 통해 주역의 원리가 한의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唐宗海는 『醫易通說』에서 “日者離之精, 水者坎之氣, 化生人物, 全賴水火, 蓋乾南坤北交而變爲坎離, 所以後天功用全在水火. 人身心配離火, 腎配坎水.”라 하였다. 坎離丸의 주요 효능이 心腎相交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곧 坎水和 離火가 서로 교류하게 하는 것이니, 坎離丸이라고 명명한 것이다.⁹⁶⁾ 唐宗海는 乾坤이 交易하여 변하여서 坎離가 되고, 따라서 後天에서는 모두 水火에 의해 인간과 만물이 만들어진다 하였다. 水火交流가 인간의 생리, 병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萬物化生の 근본이 되는 坎離를 이용해 명명하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坎離丸은 心火와 腎水를 서로 교류하여 心腎相交하게 하는 처방이라 坎離丸이라 명명했다는 설명이다.

坎離丸은 역대로 同名異方(이름은 같지만 처방 내용이 다른 것)이 매우 많다. 『魏氏家藏方』⁹⁷⁾, 『瑞竹堂方』⁹⁸⁾, 『普濟方』⁹⁹⁾, 『攝生衆妙方』¹⁰⁰⁾, 『醫學入門』¹⁰¹⁾, 『本草綱目』¹⁰²⁾, 『壽世保元』¹⁰³⁾, 『何氏濟生論』¹⁰⁴⁾, 『名醫指掌』¹⁰⁵⁾, 『活人方』¹⁰⁶⁾ 등에서 坎離丸을 찾아 볼 수 있지만, 모두 同名異方이다. 여기에서 『東醫寶鑑』의 坎離丸과 동일한 것은 『醫學入門』의 坎離丸 뿐이다. 또한 知母, 黃柏을 君으로 사용한 처방은 『普濟方』, 『攝生衆妙方』, 『何氏濟生論』이며, 그 외의 醫書에서는 전혀 다른 처방 구성을 가지고 있다.

『東醫寶鑑』중 坎離丸의 사용례는 「內景篇·身形·遺泄精屬心」, 「雜病篇·火·上升之氣屬火」, 「雜病篇·火·辨陽虛陰虛二證」, 「雜病篇·火·陰虛火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감리환은 黃柏, 知母 같은 양을 童便으로 찌고, 햇볕에

말리고, 이슬을 맞히길 9번하여 가루를 내어, 地黃을 줄여 만든 膏와 함께 梧子大로 丸을 만들어 빈 속에 소금물로 30-50환을 복용하는 처방이다.¹⁰⁷⁾ 『東醫寶鑑』에는 또한 先坎離丸, 後坎離丸이 나오는데, 先坎離丸은 坎離丸과 같은 처방이다. 後坎離丸¹⁰⁸⁾은 四物湯 재료 4味를 각 2兩, 知母 4兩, 黃柏 8兩이다. 知母는 각 1兩씩, 黃柏은 각 2兩씩 넷으로 나눠서 각각 소금물, 人乳, 꿀물, 淸酒에 담가, 하룻밤 묵힌 후 知母, 黃柏을 꺼내어, 낮에는 햇볕에 말리고, 밤에는 이슬을 맞히길 3일간 한다. 四物과 함께 가루 내어, 꿀로 丸을 빚어 梧子大로 만든다. 공복에 소금물로 8-90환 복용한다. 겨울에는 따뜻한 술로 복용한다. 이 약은 天一生水, 地二生火의 뜻이다. 능히 물을 올리고, 火를 내린다. 後坎離丸은 『醫學入門』을 인용한 처방이며, 『攝生衆妙方』의

95) 제7장의 처방에 관한 내용은 좋고, 『東醫寶鑑』처방의 역학원리 활용에 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을 인용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96) 趙存義, 『中醫古方名考』,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4, p.212.

97) 宋代 魏觀의 撰으로 1227년에 간행됨. 작자가 家傳및 그가 친히 試用하여 효험을 본 驗方 1051方を 收載함. 감리환의 구성은 酸棗仁, 菟絲子, 柏子仁, 五味子, 薏苡仁, 覆盆子, 人蔘, 枸杞子, 鹿茸, 牛膝, 肉蓯蓉, 當歸, 杜仲, 遠志, 地黃, 茯神, 沈香, 附子, 龍骨, 朱砂, 麝香으로, 小便白濁, 腰腿無力, 心神不寧, 下焦虛寒, 陰冷遺瀝을 치료한다.

98) 瑞竹堂經驗方. 元代 沙圖穆의 撰으로 1326년경에 간행됨. 감리환의 구성은 蒼朮, 麥門冬, 天門冬, 茯神, 遠志, 沈香, 鹿茸, 葫蘆巴, 川巴戟, 當歸, 人蔘, 枸杞子, 雀腦, 川芎, 陳皮이며, 心, 脾, 腎 三經不足을 치료한다.

99) 明代 朱橚, 劉醇등이 編함. 15세기 초에 간행됨. 明初에 간행된 대형 의방서이다. 明以前的 醫籍과 기타 有關著作을 광범위하게 모아 분류, 정리하여 만들. 감리환은 知母, 黃柏, 黃連으로 구성되며, 滋腎水, 益元氣, 補下元不足, 去膀胱積熱의 효능이 있다.

100) 明代 張時徹의 撰으로 1550년에 간행됨. 총 47문으로 나누어 유효 既成方을 選集하여 편성함. 감리환은 當歸, 白芍藥, 川芎, 黃柏, 知母, 熟地黃으로 구성되며, 虛損을 치료한다. 『東醫寶鑑』의 後坎離丸과 같은 처방이다.

101) 종합의서. 明代 李樞의 撰으로 1575년에 간행됨. 『醫經小學』을 원본으로 삼고, 諸家學說을 참고하여 분류, 편집한 것이다. 『東醫寶鑑』의 감리환과 동일하다.

102) 明代 李時珍의 撰으로 1590년에 간행됨. 감리환은 黃柏, 熟糯米로 구성되며, 虛勞百損, 小便淋漓, 遺精白濁을 치료한다.

103) 明代 龔廷賢의 撰으로 대략 17세기 초에 成書됨. 감리환은 龍骨, 遠志, 白茯神, 石菖蒲, 龜甲, 酸棗仁, 當歸身, 人蔘, 麥門冬, 天門冬, 生地黃, 熟地黃, 山茱萸, 川黃柏, 五味子, 柏子仁, 山藥, 枸杞子, 知母로 구성되며, 思慮過度, 心血耗散, 房欲失節, 腎水枯痺, 腎水一虛, 精神昏倦, 健忘者를 치료한다.

104) 감리환은 知母, 黃柏, 菊花, 熟地黃, 白芍藥, 川芎, 枸杞子, 當歸로 구성되며, 火症을 치료한다.

105) 종합의서. 明代 皇甫中 撰注, 王肯堂 訂補, 邵從皋 參校. 撰年未詳. 감리환은 通仙환의 導名이다.

106) 『證治百問』. 清代 劉黻이 撰함. 原書名은 『青瑤疑問』인데, 劉黻과 그의 학생들이 醫理를 문답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보충,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淸인방은 後人의 復刊本이다. 감리환은 熟地黃, 山藥肉, 山藥, 牡丹皮, 茯苓, 芡實, 蓮須, 知母, 黃柏, 遠志, 龍骨, 牡蠣로 구성된다.

107) 허준, 앞의 책, p.83, 「內景篇·精·坎離丸」

108) 허준, 앞의 책, p.425, 「雜病篇·火·後坎離丸」

坎離丸 처방과 동일하다.

坎離丸은 水火의 交易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데, 처방명에 주역의 괘인 坎卦(水)와 離卦(火)로 이름붙인 처방이다. 『東醫寶鑑』에서는 「遺泄精屬心」에서 遺泄의 원인과 처방을 밝히면서 “처음에, 君火가 편안하지 않아서 因하지만, 오래되면 相火가 마음대로 작용해 精이 나오면서 멈추지 않는다. 심하면 밤마다 매일 넘쳐 흘러서 멈추지 않는다. 마땅히 坎離丸, 黃連瀉心湯을 복용하여야한다.¹⁰⁹⁾”라고 하여서, 相火가 망동하여 나타난 遺泄의 치료에 坎離丸을 사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上升之氣屬火」에서 “기운이 좌측에서 일어나는 것은 回金丸, 當歸龍薈丸을 쓰고, 기운이 배꼽 밑에서 일어나는 것은 黃柏丸, 坎離丸을 쓰고, 기운이 다리 밑에서 일어나는 것은 四物湯에 黃柏, 知母를 소금으로 炒해서 쓰거나, 滋陰降火湯을 쓴다. 외용약으로는 부자가루를 침으로 개어 용천혈에 붙이면, 그 열을 밑으로 끌어내린다.¹¹⁰⁾”고 하여, 上升之氣는 火에 속하는데, 그 기운이 배꼽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坎離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辨陽虛陰虛二證」에서는 “血이 虛하여 熱이 나면, 陰을 滋養하여 열을 내려야한다. 四物湯에 黃芩, 黃連, 梔子를 더하여 쓰거나 滋陰降火湯, 坎離丸을 쓴다.¹¹¹⁾”고 하여, 坎離丸이 血虛하여 열이 나는 경우에 사용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陰虛火動」에서는 陰虛火動의 경우 사용하는 처방으로 先坎離丸과 함께 滋陰降火湯, 清離滋坎湯, 清肺滋陰散, 陰虛生內熱湯, 補陰瀉火湯, 補陰丸, 六味地黃丸, 坎離膏, 後坎離丸, 坎離既濟丸을 사용한다 하였다.¹¹²⁾ 또한 先坎離丸이 사용되는 병증으로는 虛火가 動하여 생기는 遺精, 盜汗, 潮熱, 痰嗽가 있음을 보여준다.¹¹³⁾

이로써, 坎離丸은 相火가 망동하여 遺泄이 생기는 경우, 血이 虛하여 虛熱이 뜨는 경우, 陰이 虛하여 遺精, 盜汗, 潮熱, 痰嗽가 생기는 경우에 사용되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坎離丸의 구성약물인 知母, 黃柏은 朱丹溪의 처방운용을 떠올리게 해준다. 특히 四物湯에 知母, 黃柏을 더하여 쓰는 後坎離丸은 비록 처방명은 없었지만, 주단계의 頻用處方이었다.

朱丹溪는 陰虛가 반드시 火旺을 일으키며, 火旺은 또한 반드시 陰液을 다시 상하게 한다고 인식하여, 치료를 할 때 補陰에 반드시 瀉火를 겸하여야 하고, 瀉火에 곧 補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滋陰降火法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어 四物湯에 知母, 黃柏 등을 가한 처방 혹은 大補陰丸 등을 상용하였다. 그의 處方用藥에는 滋陰은 도리

어 補陰精과 補陰血의 구분이 있다. 陰精이 虛하여 相火가 旺한 사람은 大補陰丸(黃柏, 知母 각 2냥, 熟地黃, 龜板 각 2냥, 豬脊髓 十條, 蜜丸, 每服三錢)을 쓰고, 陰血이 虛하여 相火가 旺한 사람은 四物湯에 加 知母, 黃柏을 쓴다.¹¹⁴⁾

朱丹溪는 『本草衍義補遺』¹¹⁵⁾에서 知母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知母: 陰中微陽, 腎經之本藥. 主消渴, 熱中, 下水, 補不足, 益氣, 骨熱勞, 傳屍疰病, 產後蓐勞, 消痰, 止嗽. 虛人口乾加而用之.¹¹⁶⁾

陰中微陽은 上下 二陰의 爻 사이에, 中爻에 一陽의 爻가 위치하는 坎卦를 말한다. 즉, 知母는 坎卦와 같아서, 腎經의 本藥이다와 같은 서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黃柏은

藥皮: 屬金而有水與火. 走手厥陰而有瀉火, 爲補陰之功, 配細辛治口瘡有奇楞.¹¹⁷⁾ (황백은 金에 속하고, 水와 火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手厥陰經을 따라 瀉火하여, 補陰하는 효과가 있다. 細辛과 배합하면 口瘡에 효과가 좋다.)

라 하여, 瀉火하고, 補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朱丹溪가 비록 坎離丸, 後坎離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처방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재의 효능 인식 또한 역학적인 사고와 동일함을 보여준다. 또한, 坎離丸의 주 처방구성인, 知母, 黃柏, 熟地黃으로, 滋陰降火를 목적으로 함을 볼 때, 朱丹溪가 체재하였던 滋陰降火의 방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09) 허준, 앞의 책, p.83, 「內景篇·精·遺泄精屬心」
 110) 허준, 앞의 책, p.423, 「雜病篇·火·上升之氣屬火」
 111) 허준, 앞의 책, p. 423, 「雜病篇·火·辨陽虛陰虛二證」: “血虛熱, 滋陰以降之, 四物湯加芩連梔子, 或滋陰降火湯, 坎離丸”
 112) 허준, 앞의 책, p. 424, 「雜病篇·火·陰虛火動」
 113) 허준, 앞의 책, p. 425, 「雜病篇·火·先坎離丸」
 114) 陳大舜의 엮음, 맹용재의 옮김,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2004, pp. 244-245.
 115) 朱丹溪가 지었으며, 책은 元代 至正 7년(1347)에 만들어졌다. 宋代 寇宗奭의 『本草衍義』를 보정한 것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明代 嘉靖 15년(1536) 각본으로서, 『丹溪心法附餘』에 붙어있다. (진주표 註釋, 『金元四大家醫學全書 상권』, 법인문화사, 2007, p. 15.)
 116) 朱丹溪 著, 『本草衍義補遺』(진주표 註釋, 『金元四大家醫學全書 下卷』), 법인문화사, 2007, p. 86.
 117) 朱丹溪, 위의 책, p. 79.

『東醫寶鑑』에서는 실제로 「遺泄精屬心」 처음 부분에 遺泄精하는 病因을 丹溪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계가 이르길, 閉藏을 主하는 것은 腎이고, 疎泄시키는 것은 肝이며, 이 두 臟은 모두 相火를 가지고 있고, 위로 心臟과 연결된다. 心은 君火이다. 사물에 감촉되면 쉽게 動한다. 心이 動하면 相火 또한 動한다. 相火가 動하면 精이 스스로 흐른다.¹¹⁸⁾

丹溪를 인용하여, 精을 사정하는 것은 肝, 저장하는 것은 腎이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心임을 밝히고 있고, 肝腎과 心臟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相火와 君火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단계를 인용한 이 문장 뒤에, “精을 主宰하는 것은 心이고, 精을 저장하는 것은 腎이다. 心腎의 氣가 虛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尿精, 漏精이 생긴다.”¹¹⁹⁾ 하여, 心, 腎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坎離丸을 사용하는 이유를 더욱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 문장이다. 또한, 『東醫寶鑑』은 여러 坎離丸 처방 중에서, 明代의 『醫學入門』의 坎離丸을 인용하였는데, 『醫學入門』의 저자인 李梴은 朱丹溪의 계통을 잇는 의학자¹²⁰⁾임을 고려해 볼 때, 『東醫寶鑑』의 坎離丸은 단계학파의 의학이론을 수집해 응용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坎離丸의 坎離는 八卦取象에 의한 命名이다. 朱丹溪는 知母를 예로 들어 八卦중 坎卦의 象을 取하여 설명하였고, 知母는 坎離丸의 대표약물이다. 또한, 人身을 八卦에 배속할 때 坎, 離는 각각 腎, 心에 배속되며, 처방운동에서도 心腎의 교류와 정상상태로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64卦로 분화되기 이전인 八卦의 取象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處方命名이다.

易은 八卦를 가지고 天地間의 만물을 상징하였으나, 八卦만으로는 만물의 변화를 상징할 수가 없자, 다시 3획괘인 八卦를 둘씩 겹쳐서 6획괘를 64개 만들었다. ¹²¹⁾ 8괘를 小成卦라 하고 64괘를 大成卦라 한다. 『東醫寶鑑』에서 大成卦의 卦名을 이용한 처방은 水火既濟卦를 이용한 既濟丸, 坎離既濟丸 등이 있고, 地天泰卦를 이용한 交泰丸이 대표적이다. 既濟丸과 交泰丸을 중심으로 64괘의 卦명을 이용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既濟丸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 既濟丸이 사용된 경우는 「內景篇·膀胱腑·膀胱病治法」, 「內景篇·小便·小便不禁」에서 찾아볼 수 있다.

「膀胱病治法」에서는 “膀胱이 虛하여 小便不禁한 경우를 치료하며, 菟絲子(술로 볶은 것), 益智仁(炒), 白茯苓, 韭子(炒), 肉蓯蓉(술로 씻은 것), 當歸, 熟地黃 각 5錢, 黃柏, 知母(모두 鹽炒함), 牡蠣(달걀), 山茱萸(술로 찌서 씨를 버린 것) 각 3錢, 五味子 1錢을 가루내어, 술에 쏘 밀가루 풀로 梧子大로 丸을 만들어, 공복에 소금물로 100丸씩 복용한다.¹²²⁾”라 하였고, 「小便不禁」에서는 “脬氣가 부족하여 陰火가 있고, 소변을 참지 못할 경우에 사용 한다” 하였고¹²³⁾, 小便不禁이 있을때, 虛冷하여 참지 못하고 밤에 더욱 심해지는 경우, 老人, 虛人의 경우, 産後遺尿, 小兒遺尿의 경우에 따라 처방을 구분하고, 通用方으로 既濟丸을 제시하고 있다.¹²⁴⁾

『東醫寶鑑』의 既濟丸은 明代 龔信的 『古今醫鑑·淋閉門』 既濟丸을 인용한 처방¹²⁵⁾으로, 처방구성은 똑같지만, 『古今醫鑑』에는 “治小便不禁”이라고 간단히 既濟丸의 효능을 언급한 반면, 『東醫寶鑑』에서는 膀胱이 虛한 경우, 脬氣가 不足하고 陰火가 있는 경우의 小便不禁을 치료한다 하여 비교적 자세히 病因, 效能을 제시하고 있다.

既濟丸이 치료하는 것이 “脬氣가 不足하고, 陰火가 있어서,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에서,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태가 水火既濟가 무너져서 생기는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상적인 신체 상태에서는 水가 위로 상승하고 火가 아래로 내려와서, 서로 순환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下焦가 약해지면서 (脬氣不足) 水 속의 火(坎卦의 두 陰爻 사이의 陽爻가 상징하는 것이다)를 제어하지 못해 火氣가 상승하고, 곧 水氣 또한 하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이러한 병리적인 상황에 대한 서술을 덧붙임으로서, 『古今醫鑑』과 달리, 기체환의 方義를 더욱 자세히 드러내주었다.

118) 허준, 앞의 책, p.83, 「內景篇·情·遺泄精屬心」

119) 허준, 앞의 책, p.83, 「內景篇·精·遺泄精屬心」

120) 차웅식,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연구-醫學入門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 60.

121)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p. 20.

122) 허준, 앞의 책, p. 153, 「內景篇·五臟六腑·膀胱腑·膀胱病治法·既濟丸」

123) 허준, 앞의 책, p. 174, 「內景篇·小便·小便不禁·既濟丸」

124) 허준, 앞의 책, p. 174, 「內景篇·小便·小便不禁」

125) 龔信 纂輯, 王立 등 校注, 『古今醫鑑』,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12.

3) 交泰丸에 대하여

『中醫古方名考』에서는 交泰丸을 설명하면서, 地天泰卦가 한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卦體는 下乾上坤이다. 乾은 天이니, 天은 위에 있어서 아래로 내리고, 坤은 땅이니, 땅은 아래에 있으며 위로 왕래한다. 이러한 天地間의 상호교류가 變通을 가능케 하니, 고로 ‘泰’라 칭한다. 泰卦의 卦意는 通達이다. 그 이유는, 乾坤陰陽이 능히 上下往來하고 相反相成하며, 구성대립의 측면에서 變通상 통일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 이치를 말하자면, 天地의 형체는 교류할 수 없지만, 그 氣는 교류할 수 있다. 교류하면, 만물이 化生하니, 고로 泰卦 <象傳>에서 이르길 “天地交而萬物通也.”라 한 것이다. 사회에 빗대서 말하자면, 군주와 백성은 上下의 관계로서 비록 지위가 교환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교환이 가능하다. 交하면 上下가 같은 마음이 된다. 고로 <象傳>에서 이르길 “上下交而其志同也.”라 한 것이다. 즉, 天地交泰는 天地의 氣, 즉 陰陽二氣가 서로 교류하여, 순리를 따라 화창하게 되고, 만물이 성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의학은 주역의 天地交泰를 기초로 陰陽相交, 交通心腎의 이론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즉, 한의학의 陰陽이 서로 교류한다거나 心腎이 서로 통한다는 이론의 기초가 天地交泰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天地, 上下가 교류하여야 만물이 통한다는 말은 交泰丸의 命名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여준다.

交泰丸은 『東醫寶鑑』에서 「雜病篇·內傷·嘈雜」에 나타난다.¹²⁶⁾

交泰丸은 胸中이 꼭 막히고 조잡증이 있으며, 대변이 묽으면 胸中이 시원하고, 대변이 딱딱하면 胸中이 꼭 막히고, 답답하여 매우 어려울 때 사용한다.¹²⁷⁾

이처럼, 가슴이 막혀 서로 교류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嘈雜症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교류하여 地天泰의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처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通’하게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心嘈’라는 民間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痰

火중에서도 心火라 추정되는 경우에 사용됨을 보여준다.

또한, 『東醫寶鑑』에는 沈香交泰丸이란 처방이 있는데, 「雜病篇·脹滿·濁氣在上則生脹」에서 사용되었다.¹²⁸⁾ 沈香交泰丸은 濁氣가 위에 있어 생긴 脹滿을 치료한다.¹²⁹⁾

마찬가지로, 맑고 輕淸한 기운이 위에 있고, 탁한 기운은 아래에 있어서 서로 순환하여야 하는데, 탁한 기운인 寒氣가 上焦에 머물러 있어서 上下交流가 잘 되지 못하여 생긴 脹滿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이해할 수 있다.

交泰丸도 同名異方이 많이 존재한다. 『鷄峰』¹³⁰⁾, 『普濟方』¹³¹⁾, 『脾胃論』¹³²⁾, 『韓氏醫通』¹³³⁾, 『惠直堂方』¹³⁴⁾, 『活人方』¹³⁵⁾, 『萬病回春』¹³⁶⁾¹³⁷⁾에서 交泰丸이 등장한다. 비록 처방 구성이 다르고, 그 주치증상이 陰陽痞膈, 水火不交, 邪熱炎上, 定心養氣, 定魄安魂, 升陽氣, 瀉陰火, 調營氣, 寬腹中, 心腎不交, 降心火, 益腎水등으로 처방의 작용 부위는 다르지만(心腎, 腹中, 陰陽, 魂魄 등), 처방운동의 목적은 上下를 交通시키며 막힌 것을 뚫어주어,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東醫寶鑑』은 『萬病回春』의 交泰丸을 인용하였다.

대부분의 交泰丸이 水火交流, 心腎의 交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면, 『東醫寶鑑』 交泰丸은 같은 목적이지만, 명치부위, 胃脘부위의 嘈雜을 치료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처

126) 허준, 앞의 책, p.438, 「雜病篇·內傷·嘈雜」
 127) 허준, 앞의 책, p.438, 「雜病篇·內傷·嘈雜·交泰丸」
 128) 허준, 앞의 책, p.504, 「雜病篇·脹滿·濁氣在上則生脹」
 129) 허준, 앞의 책, p.505, 「雜病篇·脹滿·濁氣在上則生脹·沈香交泰丸」
 130) 鷄峰普濟方. 宋代의 醫方. 撰은 고증을 요한다. 교태환은 消石, 硫黃, 五靈脂, 靑皮, 陳皮로 구성되었다.
 131) 明代 朱橚, 劉醇등이 編함. 15세기초에 간행됨. 明初에 간행된 대형 의방서이다. 明以前的 醫籍과 기타 有關著作을 광범위하게 모아 분류, 정리하여 만들. 교태환은 石菖蒲, 乳香, 遠志로 구성되는 것과, 水銀, 生硫黃으로 구성되는 것이 있다.
 132) 金代 李杲의 撰으로, 대략 13세기에 간행됨. 本書는 작자가 脾胃論 學설을 창도한 대표작이다. 교태환은 乾薑, 巴豆霜, 人蔘, 肉桂, 柴胡, 少椒, 白朮, 厚朴, 古棟, 白茯苓, 砂仁, 川烏頭, 知母, 吳茱萸, 黃連, 皂角, 紫苑으로 구성되며, 倦怠嗜臥, 四肢不收, 沉困懶倦을 치료한다.
 133) 종합의서. 2권. 明代, 1522년에 찬함. 淳于意的 醫案法式을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四診의 病症鑑別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임상상 補法의 운용에 특히 心得이 있었다. 교태환은 川黃連, 肉桂, 心으로 구성되며, 心腎不交, 怔忡無寐를 치료한다.
 134) 惠直堂經驗方. 4권. 清代 陶承熹, 王承勛 輯. 1759년에 간행됨. 임상 각과의 유효 既成方과 民間單方을 滙編하여 만들었다. 교태환은 文蛤, 熟地黃, 五味子, 遠志肉, 牛膝, 蛇床子, 茯神, 柏子仁, 菟絲子, 肉蓯蓉, 靑鹽, 狗腦骨로 구성된다.
 135) 『證治百問』. 清代 劉默이 撰함. 原書名은 『靑瑤疑問』인데, 劉默과 그의 학생들이 醫理를 문답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보충,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淸代 劉默이 撰함. 原書名은 『靑瑤疑問』인데, 劉默과 그의 학생들이 醫理를 문답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보충,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淸代 劉默이 撰함. 原書名은 『靑瑤疑問』인데, 劉默과 그의 학생들이 醫理를 문답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보충,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淸代 劉默이 撰함. 原書名은 『靑瑤疑問』인데, 劉默과 그의 학생들이 醫理를 문답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보충,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淸代 劉默이 撰함. 原書名은 『靑瑤疑問』인데, 劉默과 그의 학생들이 醫理를 문답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보충,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136) 종합의서. 8권. 明代 龔廷賢이 1587년에 撰함. 교태환은 『東醫寶鑑』의 교태환과 동일하다.
 137)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3, pp. 669-670.

방으로, 굳이 비교해보자면, 李東垣의 交泰丸과 작용부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東醫寶鑑』은 心嘈, 胸中이 막혀서 생기는 嘈雜의 증상을 치료한다면, 李東垣의 저작인 『脾胃論』에서의 交泰丸은, 升陽氣, 瀉陰火, 調營氣, 進飲食, 助精神, 寬腹中, 除怠惰嗜臥, 四肢不收, 沈困懶倦의 효능이 있어서, 그 작용이 脾胃에 미친다.¹³⁸⁾

『東醫寶鑑』의 交泰丸은 『萬病回春』을 인용한 것이다. 『萬病回春·卷之三·嘈雜』의 交泰丸은 主治가 『東醫寶鑑』과 같으나, “不思飲食”이 추가되어있고, 용량에서는 白朮, 黃連이 각각 1兩으로 東醫寶鑑의 각 2兩과 차이가 있다.¹³⁹⁾

『東醫寶鑑』이나 『萬病回春』의 交泰丸에서는 따로 ‘交泰’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東醫寶鑑』에서는 「外形篇·胸·胸痞」에서 胸痞의 治方인 香砂養胃湯의 서술에 “脾胃를 능히 조섭하고 기르며, 陰陽을 升降시켜 天地가 교류하여 泰를 이룬다.”¹⁴⁰⁾, 『萬病回春』에서는 「卷之四·補益」에서 補中益氣湯을 설명하면서, “내가 사람의 몸에 대해 말하자면, 脾胃가 위주가 된다. 脾胃의 기운이 實하면, 肺는 그 길러짐을 받아, 肺氣가 강해지면, 水가 스스로 생기니, 水升火降하므로, 水火既濟가 되고, 이는 天地가 서로 교류하여 和平(泰)해지는 것이다.”¹⁴¹⁾ 라 하였다. 모두, 脾胃를 중심으로, 陰陽을 교류시키는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人身에서 脾土는 곧 坤을 의미하니, 脾胃 중심의 上下交流하는 작용에 빗대어, 交泰丸이라 명명한 것이다. 既濟와 비교하자면, 既濟는 心, 腎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交泰는 心腎의 교류와 더불어, 中焦가 막혀있는 상태를 ‘通’하게 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4) 六一散에 대하여

象數易學은 漢代에 주류를 이루었다. 漢代 역학의 특징은 象數易의 발전이다. 漢易을 象數易이라 칭한다. 漢易의 대표 인물로는 孟喜와 京房이 있다. 그들은 주로 「說卦傳」을 근거로 삼아 奇偶의 數와 八卦取象說로 주역을 풀이하였고, 卦氣說로 易理를 해석하였다. 이후, 東漢에 이르러 鄭玄은 爻辰說과 五行說을 내 놓았고, 東漢末에 이르러 魏伯陽은 『參同契』를 저술하고 또, 卦氣說을 연단술과 결합시켜 月體納甲說을 주장하여 道教易의 선구자가 되었다. 兩漢時代는 다 큰 어떤 역사 시기보다 다르게 象數易學만의 시대였다.¹⁴²⁾

『周易·說卦傳』의 첫머리에, “參天兩地而倚數(天을 셋으로 하고, 地를 둘로 하여 數를 세웠다).”¹⁴³⁾라 하였다. 數는 본래 주역 속에 들어 있었다.

『東醫寶鑑』 처방중에 六一散은 이러한 數의 원리에 의해 작명된 처방이다. 이 글에서는 六一散의 처방구성과, 『東醫寶鑑』에서의 사용, 작명 원리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六一散은 『東醫寶鑑』에서 益元散의 異名으로 소개되었다. 益元散은

滑石 6兩, 甘草 1兩을 가루 내어, 매번 3錢을 따뜻한 꿀물에 복용하고, 혹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어 하면, 우물물로 복용한다.¹⁴⁴⁾

라 하였다. 즉, 처방구성은 滑石 6兩, 甘草 1兩이다.

六一散은 말 그대로 滑石과 甘草의 용량인 6과 1로 인해 명명된 것이다. 汪昂은 『醫方集解』에서 “六一이라는 數는 天一이 水를 生하고, 地六이 水를 成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其數六一者, 取天一生水、地六成之之義也).”라고 하였으며, 劉河間은 이 처방을 一名 天水散이라 하였음을 밝혔다.¹⁴⁵⁾

『醫方集解』에서는 六一散의 滑石, 甘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滑石은 氣가 輕하여 능히 肌肉을 풀고 質이 重하여 능히 清降하며, 寒하여 능히 熱을 瀉하고, 滑하여 능히 通竅하고, 淡하여 능히 行水하며 肺氣를 降하게 하여, 아래로 膀胱이 通하게 한다.(火氣가 물러나면, 肺氣가 하강하고, 고로 능히 水를 生하고,

138) 李東垣 著, 『東垣醫集·脾胃論』(진주표 註釋,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卷』), 법인문화사, 2007, p. 710.

139) 龔廷賢 撰, 진주표 編譯, 『對譯 萬病回春』, 법인문화사, 2007, p. 372 : “[交泰丸]治胸中痞悶嘈雜, 大便稀則胸中頗快. 大便堅則胸中痞悶難當. 不思飲食. 黃連一兩薑汁浸黃土炒, 枳實一兩麩炒, 白朮去蘆土炒一兩, 吳茱萸湯泡微炒二兩, 歸尾酒洗一兩三錢, 大黃用當歸, 紅花, 吳茱萸, 乾漆各一兩煎水, 洗大黃一晝夜, 切碎晒乾, 仍以酒拌晒之, 九蒸九晒用四兩, 右爲細末, 薑汁打神麵糊爲丸. 如菜豆大. 每服七八十丸. 不抱時. 白滾水送下.”

140) 허준, 앞의 책, p.267, 「外形篇·胸·胸痞·香砂養胃湯」

141) 龔廷賢, 앞의 책, p.434 : “愚謂人之一身, 以脾胃爲主. 脾胃氣實, 則肺得其所養, 肺氣既感, 水自生焉. 水升火降, 則水火既濟, 而令天地交泰之會矣.”

142)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p. 51.

143) 『原本周易』, p. 1128. 『周易本義』에서는 “天圓地方이니, 원은 직경이 1이면 둘레는 3이니, 3은 각각 一奇이다. 고로 天을 셋으로 하여 3이 된다 하였다. 네모는 지름이 1이면 둘레는 4이다. 4는 두변을 합했다. 그러므로 地를 둘로 하여 2가 된다고 하였다. 수는 모두 이것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주석하였다. (『譯註 周易本義』, p. 654)

144) 허준, 앞의 책, p.411, 「雜病篇·暑·暑熱煩渴·益元散」

145) 汪昂, 『醫方集解』,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pp. 222-224

소변을 원활히 한다), 고로, 暑病으로 인한 설사를 멈추고, 煩渴을 멈추며, 소변을 行하게 한다(소변이 원활해지면 대변이 實하여져서, 설사는 저절로 멈춘다). 甘草를 加하는 것은 中氣를 조화롭게 하고, 滑石의 차갑고, 매끄러운 성질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다.¹⁴⁶⁾

즉, 滑石은 氣運은 가볍지만 質은 무겁고, 그 성질이 寒, 滑, 淡하여 熱을 瀉하고, 九竅를 通하게 하며, 능히 行水하게 한다. 六一散이 天一生水, 地六成之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隕석이 火氣를 물러나게 해서, 肺氣를 下降시키고 水를 生하여 膀胱을 通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東醫寶鑑』에서 六一散이 사용된 곳은 「雜病篇·暑·暑熱煩渴」, 「雜病篇·霍亂·濕霍亂治法」, 「雜病篇·小兒·諸熱」이다. 이외에도, 다른 처방과 합방하여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고(예를 들면, 平胃散과 合方하여 黃栢散이 된다), 加味六一散, 辰砂六一散등의 변방도 다 수 사용되고 있다.

六一散은 暑邪에 감촉되어 나타나는 身熱, 吐瀉, 腸澀, 下痢赤白, 癰閉를 치료하는데, 胃中의 積聚와 寒熱을 씻어 내며 쌓인 기를 헤치고 九竅, 六腑를 통하게 하며, 津液을 生하고, 막힌 것을 뚫고, 쌓인 물을 삭히고, 갈증을 멈추고, 번조함을 없앤다. 脾腎의 기운을 크게 養하고, 여러 가지 약, 술, 음식의 邪毒을 푼다.¹⁴⁷⁾ 또한 小兒諸熱에 神妙하다.¹⁴⁸⁾

『醫學入門』에서는

六一散은 일명 天水散이라고 한다. 天一生水, 地六成之의 뜻이다. 또 益元散이라고 하는 이유는 熱을 제거하여, 元氣를 더하기 때문이다.¹⁴⁹⁾

라고 하여, 六一散의 方名の 뜻을 밝히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이 구문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六一散을 益元散의 異名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六一散의 除熱하는 작용보다, 除熱하여 元氣를 養하는 작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汪昂의 六一散 설명에서와 같이, 六一散의 원리와 작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즉, 六一散은 肺氣를 下降시키고 熱을 瀉하는 작용이 있지만, 그로 인해, 水가 生하고 膀胱이 通하는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天이 처음 水를 生한 이후 만물이 生長할 수 있으니, 곧 元氣를 크게 養하는 원리에 더 중점을 두어, 益元散을 앞에 내세운 것이다.

본문에서도 脾腎을 크게 養한다고 하였다.

六一散은 天이 처음 水를 生하고, 地六에서 成하는 원리를 이용한 처방이다. 이와 비슷한 처방으로는 天乙丸을 들 수 있다.

天乙丸은 『東醫寶鑑·雜病篇·小兒·諸熱』에 나오는 처방으로, “小兒가 생기는 원리는 본래 天이 제일 먼저 水를 生하는(天一生水) 법칙에 근거하므로, 무릇 治病함에 있어서, 水道를 通利시키는 것이 淸心이다. 이 처방은 淸心하고, 利水小便하여 火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¹⁵⁰⁾ 라 하였다.

5) 太極丸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腎虛藥의 분류에 腎虛하면 마땅히 六味地黃元, 陰煉秋石丹, 八味地黃丸, 冷補丸, 腎氣丸, 三一腎氣丸, 延年益壽不老丹, 無比山藥元, 補腎養脾丸과 더불어, 太極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太極丸은 腎虛를 치료하며 黃栢 二兩六錢(屬木), 知母 一兩四錢(屬水), 破故紙 二兩八錢(屬火), 胡桃肉 一兩二錢(屬金), 縮砂 五錢(屬土)로 구성되며, 가루내어 꿀로 환을 梧子大로 빚어, 공복에 소금물로 30-50환 복용하는 처방이다.¹⁵¹⁾

太極丸의 方名은 太極에서 陰陽으로, 陰陽에서 五行(五行은 萬物을 상징한다)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 五行을 상징하는 약물로 구성된 처방이어서, 太極丸이라 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五行이 모두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五臟을 조화롭게 하고, 中和의 기운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太極丸이라 命名한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腎虛藥을 분류하면서 “腎臟이 둘이 있는데, 좌측은 腎이고, 우측은 命門이다. 腎은 水에 속하니, 水가 부족하면 陰虛가 된다. 命門은 火에 속하니, 火가 부족하면 陽虛가 된다.”¹⁵²⁾ 고 腎과 命門을 구분하면서, 굳이 太極丸을 腎虛藥에 분류해 놓았다. 이를 근거로 『東醫寶鑑』

146) 滑石, 氣輕能解肌, 質重能淸降, 寒能瀉熱, 滑能通竅, 淡能行水, 使肺氣降而下行通膀胱(火退則肺氣下降, 故能生水而利小便). 故能祛暑住瀉, 止煩渴, 而行小便也(小便利則大便實, 而瀉自止). 加甘草者, 和其中氣, 又以緩滑石之寒滑也.

147) 허준, 앞의 책, p.411, 「雜病篇·暑·暑熱煩渴·益元散」

148) 허준, 앞의 책, p.648, 「雜病篇·小兒·諸熱」

149) 李梴, 『精校編註 醫學入門』, 고려의학, 1989, p.27 : “六一散, 一名天水散, 取天一生水, 地六成之之義也. 又名益元散者, 除中熱以益元氣也.”

150) 허준, 앞의 책, p. 649, 「雜病篇·小兒·諸熱·天乙丸」

151) 허준, 앞의 책, p.449, 「雜病篇·虛勞·腎虛藥·太極丸」

152) 허준, 앞의 책, p.449, 「雜病篇·虛勞·腎虛藥」

에서는 人身의 太極을 腎이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론이다. 命門이 무엇인가, 太極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무수히 많았다. 『東醫寶鑑』에서는 결론을 내린다고 보다, 左腎右命門說을 수용하고 있는데, 左腎은 水에 속하니, 水가 부족하면 陰虛가 된다. 太極은 天地를 生하고, 天一生水하니, 水가 부족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太極丸을 든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腎虛藥인 太極丸뿐만이 아니라, 『古今醫鑑』에서 인용한 同名異方의 太極丸이 있다. 小兒門의 稀痘方(두창을 드물게 하는 처방, 즉 예방 처방)중에 稀痘兎紅丸이 그것이다.

稀痘兎紅丸은 “일명 太極丸이라 하는데, 음력 초8일에 산토끼 한 마리의 피를 취하여, 메밀가루 조금과 섞은 다음 雄黃 4,5푼을 加하여, 말려서, 떡같이 만든다. 태어난 지 3일 후부터의 소아에게는 녹두대로 2,3환을 乳汁에 섞여 먹이고, 1세는 5-7환, 3세후에는 15환을 오랫동안 먹이면, 온몸에 紅斑이 發하니,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평생 동안 痘疹이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가볍게 나온다...”¹⁵³⁾라 하였다. 이 처방은 소아 胎毒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痘疹이 생기는 것을 면하게 하고, 평생 동안 痘疹이 나오지 않게 하고, 나더라도 드물게 하는 처방이다. 이 처방을 太極丸이라 하는 이유는, 소아의 痘疹은 주로 胎毒이 원인이 되며¹⁵⁴⁾, 小兒가 生하는 원리는 十月養胎에서 밝힌 것처럼, 太極이 動하고, 太極이 靜하여, 陰陽으로 분화되는 이치이니, 胎에 문제가 있어 생긴 痘疹을 치료하므로, 太極丸이라 命名한 것이다.

6) 기타

天地人 三才를 이용한 三才丸이 있다. 삼재환은 亡血脫血證¹⁵⁵⁾과 虛勞調理藥¹⁵⁶⁾으로 쓰인다.

三才丸- 血虛를 보한다. 天門冬, 熟地黃, 人蔘 각각 같은 양을 가루내어 꿀과 함께 오자대로 환을 만들어 100알씩 술이나 미음과 함께 복용한다.¹⁵⁷⁾

천문동, 숙지황, 인삼이 각각 천, 지, 인을 상징하는 약물로 사용되었다.

같은 약물 구성으로 배합비율만 달리한 虛勞調理藥인 天地煎의 경우도 천지인 삼재 사상을 드러내주는 처방이다.

天地煎- 허로로 인해, 혈이 적고, 입이 마르고 인후가 건조하며, 정충, 황홀하며, 소변이 불고 탁한 것을 치료한다. 천문동 이냥, 숙지황 일냥을 가루내어 꿀로 오자대로 환을 만들어 인삼 달인 것과 함께 100환씩 복용한다.¹⁵⁸⁾

三才丸과 마찬가지로 천문동, 숙지황, 인삼을 사용한 처방이다.

十全大補湯의 경우는 기혈이 모두 쇠하고, 음양이 함께 약하여진 것을 치료하니, 天地의 成數를 따른 처방이라고 하여¹⁵⁹⁾, 1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붙여서 상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Ⅲ. 결론

이 글에서는 태극을 중심으로 한 우주생성론과 구조론, 천인상응의 천인관, 음양의 消息을 중심으로 한 음양관, 八卦이론의 응용, 六十四卦의 응용, 『易經』과 『易傳』을 직접 인용한 경우, 처방의 활용에서 역학원리를 사용한 경우의 순서로 『東醫寶鑑』의 의역사상을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東醫寶鑑』에서는 우주 생성론으로서 太極을 해석할 때 우주형성의 4단계로 설명하였다. 太易, 太初, 太始, 太素를 들고, 이를 이용해 易有太極을 설명하고 있다. 아직 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가 太易이 되고, 氣之始가 太初가 되고, 形之始가 太始가 되고, 質之始가 太素가 된다. 形氣質이 혼연일체되어 미분리된 상태를 混淪이라 하였는데 混淪之物이 漢인들이 말하는 元氣이고, 이것이 곧 太極이 된다. 이는 漢代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우주 구조론으로는 一氣의 회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주자의 우주론과 유사하다. 우주생성론과 구조론에서는 주자의 근본이론인 理氣二元論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朱子, 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태

153) 허준, 앞의 책, p.654, 「雜病篇·小兒·稀痘方·稀痘兎紅丸」

154) 허준, 앞의 책, p.654, 「雜病篇·小兒·痘癩疹三證專由胎毒」

155) 허준, 앞의 책, p.107, 「內經篇·血·亡血脫血證」

156) 허준, 앞의 책, p.453, 「雜病篇·虛勞·虛勞調理藥」

157) 허준, 앞의 책, p.107, 「內經篇·血·亡血脫血證·三才丸」

158) 허준, 앞의 책, p.453, 「雜病篇·虛勞·虛勞調理藥·天地煎」

159) 허준, 앞의 책, p.447, 「雜病篇·虛勞·陰陽俱虛用藥·十全大補湯」

극을 해석하여 성리학적 우주론을 적극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역의 핵심은 천인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東醫寶鑑』은 제일 처음을 천인상응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주역의 천인상응 사상은 특징적으로 天道,地道,人道の 三才의 사상으로 통합된다. 『東醫寶鑑』에서는 직접 ‘三才’를 언급하기도 하고, 精氣神을 중시하여 三才사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三才의 원리를 활용한 제환법을 소개하기도 하여 치료에도 응용하였다.

주역과 의학의 기본이론은 음양관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음양의 원리중 消息의 원리를 활용한 주역의 十二消息卦를 차용하여, 醫易相通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東醫寶鑑』에서 팔괘의 운용은 후천팔괘의 방위를 이용한 장부와 팔괘의 배속이 있고, 형상에 따라 胞를 坤에 배속한 경우도 있다. 六十四卦의 활용은 매우 빈번했는데, 水火既濟와 水火未濟, 地天泰, 天地否, 地雷復괘 등의 활용을 찾아보았다. 水火既濟와 地天泰의 상태는 인간의 생리로, 水火未濟와 天地否는 인간의 병리로 보았다.

『東醫寶鑑』 처방 중에서 坎離丸 既濟丸, 交泰丸, 六一散, 太極丸의 방제 구성과 『東醫寶鑑』에서의 설명, 다른 의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東醫寶鑑』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 『東醫寶鑑』의 坎離丸은 단계학과의 의학이론을 수집해 응용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2) 『東醫寶鑑』의 既濟丸은 明代 龔信의 『古今醫鑑·淋閉門』 既濟丸을 인용한 처방으로, 처방구성은 똑같지만, 『古今醫鑑』에는 “治小便不禁”이라고 간단히 既濟丸의 효능을 언급한 반면, 『東醫寶鑑』에서는 膀胱이 虛한 경우, 脬氣가 不足하고, 陰火가 있는 경우의 小便不禁을 치료한다 하여, 비교적 자세히 病因, 效能을 제시하고 있다.

3) 『東醫寶鑑』은 『萬病回春』의 交泰丸을 인용하였다. 既濟와 비교하자면, 既濟는 心, 腎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交泰는 心腎의 교류와 더불어, 中焦가 막혀있는 상태를 ‘通’하게 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4) 六一散의 “六一”이라는 數는 天一이 水를 生하고, 地六이 水를 成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東醫寶鑑』에서 六一散이 사용된 곳은, 「雜病篇·暑·暑熱煩渴」, 「雜病篇·霍亂·濕霍亂治法」, 「雜病篇·小兒·諸熱」이다.

5) 『東醫寶鑑』에서는 腎虛藥의 분류에 太極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太極丸의 方名은 太極에서 陰陽으로, 陰陽에서 五行(五行은 萬物을 상징한다)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 五行을 상징하는 약물로 구성된 처방이

서, 太極丸이라 名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五行이 모두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五臟을 조화롭게 하고 中和의 기운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太極丸이라 命名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東醫寶鑑』은 太極·八卦이론, 天人相應사상, 陰陽사상, 卦의 符號체계, 象數이론 등 의역학의 연구 대상에 들어있는 의역학적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東醫寶鑑』의 의역사상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 醫易學史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타 한국의서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면 『東醫寶鑑』의 醫易思想과 醫易學史에 서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참고문헌

1. 許浚, 『原本 東醫寶鑑』, 남산당. 2004.
2. 明文堂 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명문당. 1999.
3. 張介賓, 『類經圖翼·附類經附翼』, 대성문화사. 1988.
4. 李梴, 『精校編註 醫學入門』, 고려의학. 1989.
5. 龔信 纂輯, 王立 등 校注, 『古今醫鑑』,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6. 龔廷賢 撰, 진주표 編譯, 『對譯 萬病回春』, 법인문화사. 2007.
7. 汪昂, 『醫方集解』,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8. 안동림 譯註, 『莊子』, 현암사. 1994.
9. 진주표 註釋,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법인문화사. 2007.
10. 朱丹溪, 『本草衍義補遺』(진주표 註釋, 『金元四大家醫學全書』), 법인문화사. 2007.
11. 李東垣, 『東垣醫集·脾胃論』(진주표 註釋, 『金元四大家醫學全書』), 법인문화사. 2007.
12. 맹용재 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13.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2004.
14. 唐宗海 著, 김달호, 안규석 共譯, 『醫易通說』, 의성당. 2002.
15. 안규성, 『易學原理講話—주역원리에 관한 老少問答』, 예문지. 2007.
16. 朱子 著, 白殷基 譯註, 『譯註 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17. 李浚川 編. 張敬善, 權寧奎, 金南一 譯. 『醫易學思想』. 법인문화사. 2000.
18. 吾淳. 『古代中國科學範型』. 北京 : 中華書局. 2002.
19. 魏伯陽 著. 陳顯微 註解. 『周易參同契解』. 自由出版社. 1979.
20. 許慎 編.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대성문화사. 1990.
21. 陳大舜의 譯음. 맹웅재의 옮김.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2004.
22. 趙存義. 『中醫古方方名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23.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24. 윤창열 編著. 『醫易學』. 주민출판사. 2007.
25. 야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2006.
26. 馮友蘭 著. 박성규 譯. 『중국철학사』. 까치글방. 2007.
27. 小野澤精一 외. 『기의 사상』.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7.
28. 김남일. 「韓國 醫易學 研究 略史」. 『제 3회 국제역학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주역학회·국제역학연합회. 2007.
29. 김남일.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한국의사학회지. 1999 ; 12(2).
30. 김남일. 「『東醫寶鑑』 滋陰論의 醫易學的 해석」. 주역연구 vol.5. 한국주역학회. 2000.
31. 김남일. 「『東醫寶鑑』 등재의 의의와 현대적 활용」.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09 ; 15(1) : 14.
32. 김홍균.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비교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0 ; 13(1).
33.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00 ; 13(1).
34. 차웅석.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연구-『醫學入門』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35.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향약의학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36.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37. 김대형. 「『東醫寶鑑』 身形門의 도가 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2 ; 15(2).
38. 박성규.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허준의 인간관」.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9. 박성규. 「허준의 자연관」. 한국의사학회지. 2005 ; 18(2).
40. 이혁재. 「東醫寶鑑의 醫易同源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41. 姜惠永. 「處方命名에 대한 小考-方藥合編의 醫方活套를 中心으로-」.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1990 ; 1(1).
42. 정병식. 「太極 개념 형성의 淵源的 배경과 해석」. 『철학』 제88집. 한국철학회. 2006.
43. 윤창열. 「人身의 太極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 ; 13(1).
44. 김병환. 「자무극이위태극(自無極而爲太極) 인가,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인가」. 『퇴계학보』. 퇴계학 연구원. 1997 ; 93(0).
45.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敎 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46. 박경련. 「『東醫寶鑑』의 서지학적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47. 김호. 「『東醫寶鑑』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의학론」.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48. 권학철. 「『東醫寶鑑』을 통한 허준의 의학사상에 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49. 정병식. 「주역의 삼재지도와 천생인성」.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연구. 2005 ; 24(0).
50.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3.
51. 蕭元 主編. 『周易大辭典』. 일증사. 1992.
52. 홍원식 외.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53. 張其成 主編. 『易學大辭典』. 華夏出版社. 1992 : 908.
5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DB - <http://jisik.kiom.re.kr>
55. 김남일. 허준과 한국의 한의학. 허준박물관도록. 200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DB - <http://jisik.kiom.re.kr>.
56. 김남일. 『東醫寶鑑』으로 읽는 한의학의 역사(34). 『東醫寶鑑』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회. - <http://www.dongui400.or.kr>